보도일시: 2021.11.8.(월) 12:00 이후 | 브리핑 11.8.(월) 11:00

'21. 10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

□ 안녕하십니까,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.
10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보도자료 **1쪽**입니다.

○ **'21년 10월**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**1,458만 7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35만 6천명 증가했습니다.**

▸ **가입자수 증감**(천명): ('21.6)462→ (7)485→ (8)417→ (9)390→ (10)356

○ 지난해 추경일자리 사업으로 증가했던 **공공행정** 가입자가
최근 **기저효과로 감소가 확대**된 점을 고려하면
고용상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▸ 공공행정 증감(천명): ('20.9)181→ (10)199, ('21.8)-45→ (9)-83→ **(10)-111**
▸ 공공행정 제외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6)416→ (7)436→ (8)462→ (9)473→ **(10)467**

□ 보도자료 **2쪽**입니다.

○ **제조업**은 **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투자, 생산이 증가**하여
대부분 업종에서 **개선**되어 **증가**하고 있으며

○ **서비스업**은 **디지털 전환**으로 인한 **수요 증가**와
백신접종, 일상회복 기대에 따른 **소비심리 회복*** 등에
힘입어 **증가 지속**하였습니다.

* 소비자심리지수: ('20.10)93, ('21.6)110→ (7)103→ (8)103→ (9)104→ (10)107

○ **모든 연령대에서 피보험자가 증가**했습니다.
특히, **청년층과 30대**는 급속하게 **인구가 감소**하고 있으나
청년층은 **'출판정보통신업'과 '제조업' 중심**으로
30대는 **'출판정보통신업'과 '보건복지업' 중심**으로
증가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○ **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8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1만 명으로 감소했으며,

- **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,877억원으로**
2개월 연속 1조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.

□ (상세설명) 보도자료 **7쪽** **업종별 동향**입니다.

○ **제조업** 가입자수는 **361만 5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하였습니다.

▸ **가입자수 증감(천명):** ('21.6)68→ (7)79→ (8)86→ (9)89→ (10)89

- 제조업 가입자 수는 **작년부터 이어온 수출 호조**와
국내 및 세계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수요로
올해 1월 증가 전환 이후 **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**

○ 제조업 중분류별로 주요 업종의 특징을 보면
'식료품'은 1인 가구 증가, 코로나19 영향으로 **도시락, 간편조리식 등의 소비가 증가**하면서 **피보험자 증가가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○ (9쪽) 반도체, 컴퓨터, 가전 등 **'전자통신' 수요가 증가**하고
건설, 제조업 기반시설 투자 확대로
건설·공작기계 등 **'기계장비' 증가도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○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 **'기타운송장비'**는
전년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**수주량 증가**에 따라
선박건조업, 부품 제조 중심으로 **감소폭이 축소**되고 있습니다.

○ **'자동차'**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생산의 어려움이 크지만
신차, 친환경 완성차로의 설비 전환,
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**대규모 사업장 신규 설립** 등에 힘입어
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□ 다음으로, **11쪽 서비스업 동향**입니다.

○ **서비스업** 가입자수는 **1,007만 5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23만 5천명 증가**하였습니다.

▸ **가입자수 증감(천명):** ('21.6)365→ (7)377→ (8)301→ (9)270→ (10)235

- **서비스업**은 **소비심리 개선, 디지털 서비스 확산**(온라인쇼핑, 택배, 출판영상통신), 경기 회복으로 인한 **전문서비스**(회계, 광고, 컨설팅) **및 사업지원서비스 등의 영향**으로 **증가를 지속**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**국내여행 증가, 사적모임 제한 완화** 등에 힘입어
'숙박·음식업'은 감소폭이 둔화되었습니다.

○ 다만, **'공공행정'**은 **작년 추경 일자리에 따른 증가의**
기저효과로 **감소폭이 확대**되었고

- **'운송업'은** 택시, 시외버스, 여객기 등
육상 및 항공운송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□ **서비스업 주요 중분류별 동향**입니다.

○ **'도매업'**은 건설업, 제조업 **장비 및 상품 중개 중심**으로
'소매업'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로
편의점,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**증가**하고 있습니다.

○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의 수요 확대로
'프로그래밍', '정보서비스', '영상·오디오기록물제작·배급' 등
온라인 기반 서비스업종에서 **증가가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의학, 약학, 자연과학 등의 **'연구개발업',**
회계, 광고대행, 경영컨설팅 등의 **'전문서비스업'**,
R&D, SOC 예산 지원 등의 영향을 받은 **'건축기술엔지니어링'**
등에서 **증가가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○ 경기 회복으로 사업지원업종인 **'사업시설관리'**와
'인력공급업'을 중심으로 **증가 지속**하였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**17쪽,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현황**입니다.

○ 10월 **구직급여 신규신청자**는 **7만 8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1만 명 감소**했고,
구직급여 수혜자는 56만 5천 명으로
전년동월대비 **7만 8천명 감소**했습니다.

○ **구직급여 신규신청자 및 수혜자수는**
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이후
다시 공식 발표된 지난 **7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**하였습니다.

- 특히 **공공행정, 보건복지업 등을 제외**한
대부분 업종에서 신규신청자가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○ **구직급여 수혜금액**은 **8,877억 원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10.8% 감소**하였습니다.

< 종합평가 >

□ **고용보험 행정통계**로 본 **10월 노동시장 상황**은
코로나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**개선세**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
○ **일상회복에 대한 기대**가 높아지며 **소비심리가 회복**되고,
수출 호조*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

* 10월 수출은 555.5억달러로, 전년동월대비 24% 증가
→ 10월 기준 사상 최대,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2위

○ 다만, **방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**하고
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
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**위드(With) 코로나 시대**에
더욱 포용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
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**피해를 입는 노동자의 고용안정**을
지원하기 위한 **제도적 기반을 차질없이 마련**하겠습니다.

* 7.22.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

- 우선, 노동자가 전기차·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
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
'22년도 예산안에 총 1.1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.(5개 부처 41개 사업)

- 특히, **노동전환 지원센터**를 **내년 1월에 개소**하여
노동자와 기업의 **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**하고
범부처 패키지 지원*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

* 기업의 사업전환 및 신사업 진출 지원 +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
→ 통합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

- 다음으로, 정부가 산업전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
반드시 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
「노동전환 지원법」 제정을 추진*하고 있습니다.

* 9.14. 이수진 의원 발의 (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)

- 아울러,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**석탄화력발전 분야***의 경우
노사, 산업부·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업하여
이직예정자 전수 상담, 취업처 발굴, 생계·주거지원 등
섬세하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.

* '17~'34년까지 총 34기 폐쇄 계획(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, '20.12)
→ '21.12월 호남 1,2호기 폐쇄 예정

② **미래 유망산업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**하여
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- 과기부·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
신기술 관련 인력수요과 공급을 전망하고, 이를 토대로
4대 부문(디지털, 산업기술, 환경·바이오, 미래원천기술)
20개 신기술 분야*에 대한
'22년도 인력양성 협업예산안 1.6조원**을
편성하였습니다.(16개 부처 140개 사업)

* (디지털) AI,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, 메타버스 등
(산업기술) 이차전지, 지능형 로봇, 3D 프린팅 등
(환경) 바이오헬스, 신재생에너지 등 (미래원천기술) 수소, 양자, 우주 등

** ('21년) 6개 분야 30개 사업 0.5조원 → ('22년) 20개 분야 140개 사업 1.6조원

· 훈련수요자가 **초급, 중급, 고급 단계별 훈련***을 통해 역량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**훈련과정 간 연계와 정보 제공을 강화**하겠습니다.

* (예시)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분야: 교육부 초급과정 → 고용부 하이테크 과정(중급) → 과기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과정(고급)

- 아울러, **K-디지털 트레이닝** 등 **민간 주도의 혁신적 직업훈련**을 통해 **'25년까지 41만 3천명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***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* 6.9. 민·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

· 특히, 삼성, 케이티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**'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*'의 훈련생 모집**을 지난달 25일부터 **개시**하였습니다.

* 삼성, 케이티, 에스케이하이닉스, 포스코 4개 기업의 5개 훈련과정, 연간 3,100명의 인재 양성

③ 마지막으로 특고, 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 **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보호체계**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.

* 9.30.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발표

- 올해 안에 **「플랫폼 종사자 보호법*」 등 이 입법**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(현재 환노위 계류).

*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,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등

-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속성 요건 폐지('21.하 법률 개정안 발의)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('22.1월)을 추진하는 등 **사회안전망도 강화**해 나가겠습니다.